

## 36과 도피성

어느 날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 
한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,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‘휘이익’  
빠져나갔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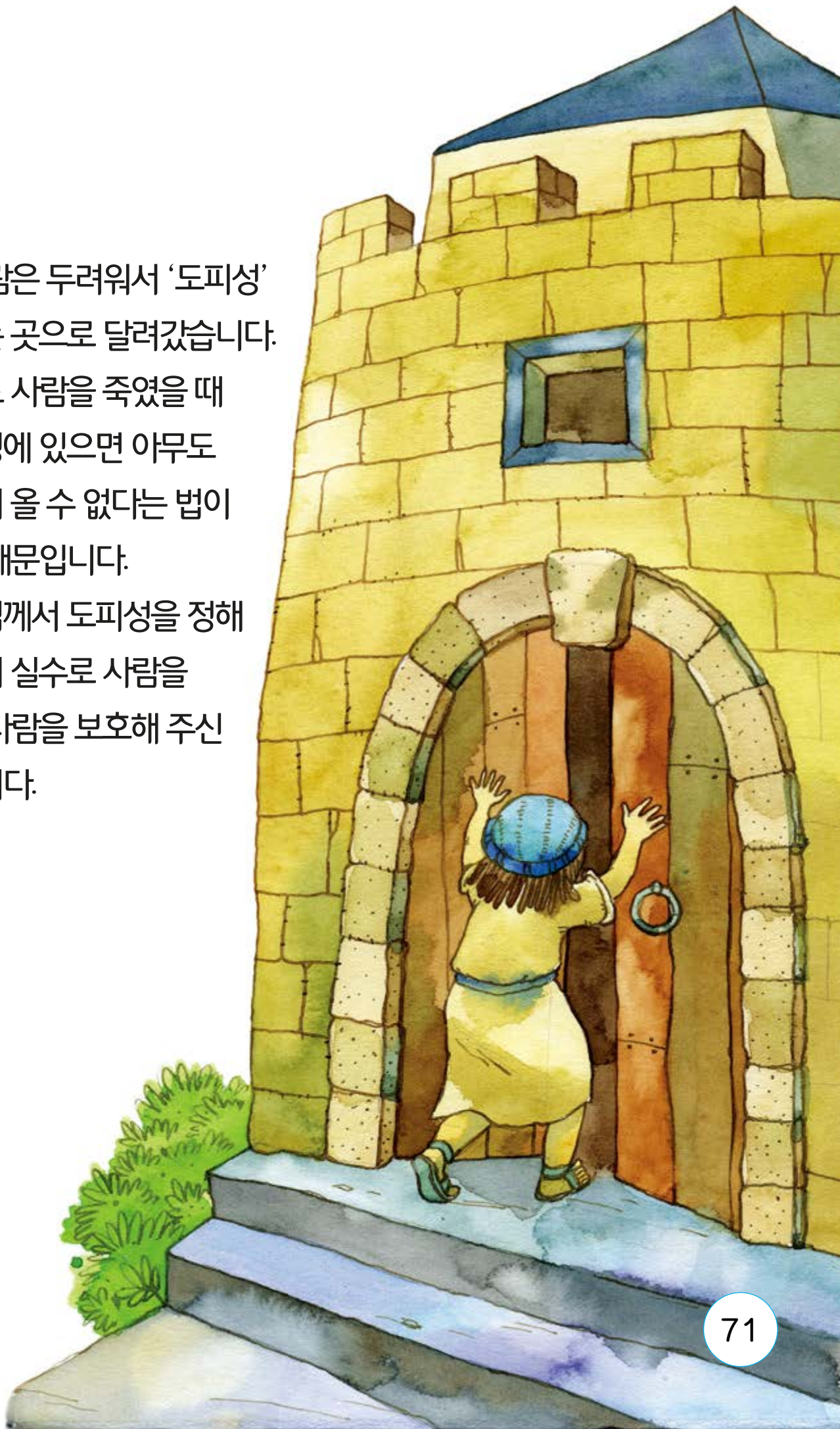
“으아악!”

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.

“흐음, 이를 어찌? 분명히 이 사람 가족과 친척들이 나에게  
복수하러 올 텐데……!”



그 사람은 두려워서 ‘도피성’  
이라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.  
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 
도피성에 있으면 아무도  
잡으러 올 수 없다는 법이  
있기 때문입니다.  
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해  
주셔서 실수로 사람을  
죽인 사람을 보호해 주신  
것입니다.



# 교제해요

1. 다음 중 도피성으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? (            )



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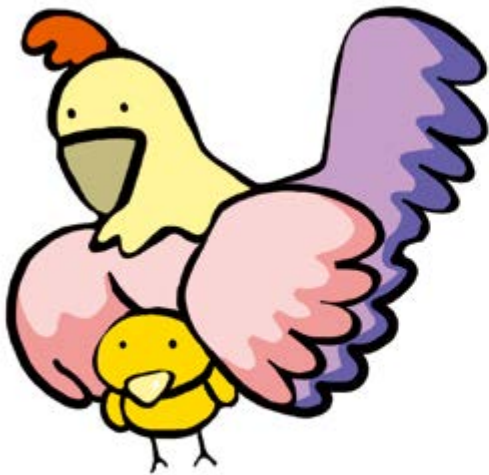


②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



③ 미운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경우

2. 다음 그림들을 보고 비슷한 점을 찾아 선생님과 교제해요.



하나님이여 나를   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(시편 16:1)

# 암송

암송을 따라 써요.

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 
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 
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 
없느니라  
(요한복음 14장 6절)

## 기도하는 어린이



하나님! 나쁜 마귀가 저를 공격해 와도  
하나님의 방패로 지켜주세요.

나의  
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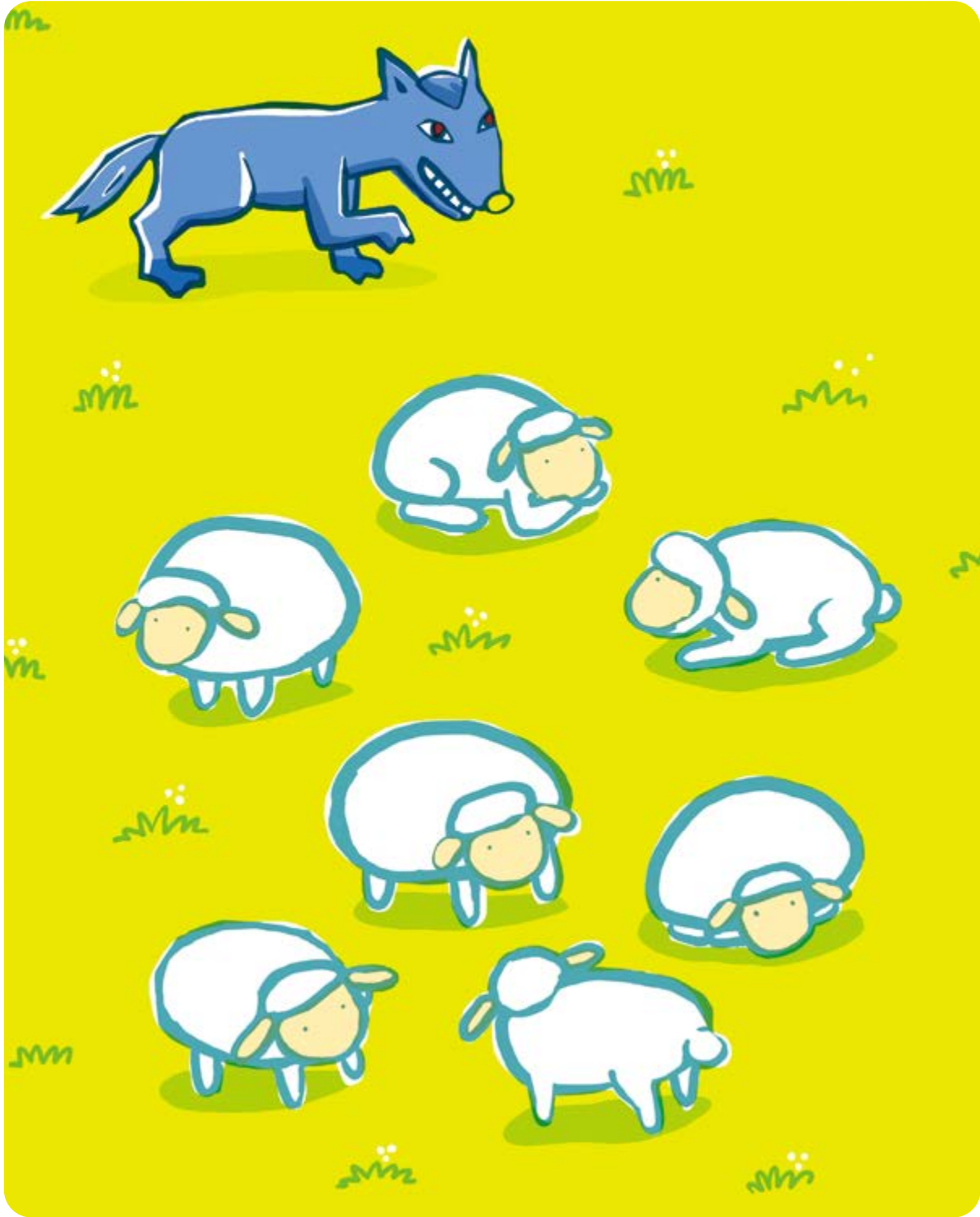
---

---



## 울타리 그리기

들판에 있는 어린양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울타리를 그려 주세요.



# 다리 그리기

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가고 있어요. 뒤에서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.  
도피성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다리를 그려 주세요.



선생님께

부모님께